



“내 삶을 혁명하는 새로운 광주시대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



● 걸어온 길

▲1964년 고흥 출생 ▲전남대 전기공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7대~제19대 국회의원(3선) ▲2012년 민주당 합당 최고위원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정무수석

“14곳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뛰쳐나갈 것이며,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강기정(57)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 일성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패배 후 4년 간 권토중래한 끝에 영예를 안은 강 당선자는 1일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좋은 정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이라는 큰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 ‘듣는다 유세’를 통해 무수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이 어떤 변화를 바라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꿈꾸는 시민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들께선 ‘광주를 빠르게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하셨고, 취업과 창업, 결혼·출산·보육, 교육과 문화·여가 등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시민 뜻을

받들어 경제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으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누리는 광주, 활력 넘치는 도시’를 그려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표도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원대한 꿈에 걸맞게 앞서 나가야 할 때고, 광주형 일자리 시즌2도 본래도에 올라야 한다”며 “여기에 도심 근공항 이전과 어등산 개발, 지산IC 안전 문제 등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때”라고 덧붙였다.

선거 과정에서 ‘광주 신(新)경제지도’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권역별로 ▲첨단의료와 문화산업(동구) ▲마이스와 환경(서구) ▲차세대 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남구) ▲반도체와 인공지능(북구) ▲자율주행과 반도체(광산구)를 밀집도로 그린 것과도제를 같이 한다.

보수 정권 아래 지역 발전을 위한 급선무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꼽았고, 전남과의 메가시티 구축과 광역 SOC 교통망 등을 큰 그림으로 제시했다.

/김도기 기자

“호남소외 극복 국가균형 발전 이룰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



● 걸어온 길

▲1965년 완도 출생 ▲광주 제일고-건국대 행정학 학사 ▲미국 시리우스대학 행정학과 석사 ▲목포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주당 수석대변인 ▲농림부 장관 ▲전남도지사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지원 없이 사실상 전남지역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라며 “다시 한 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보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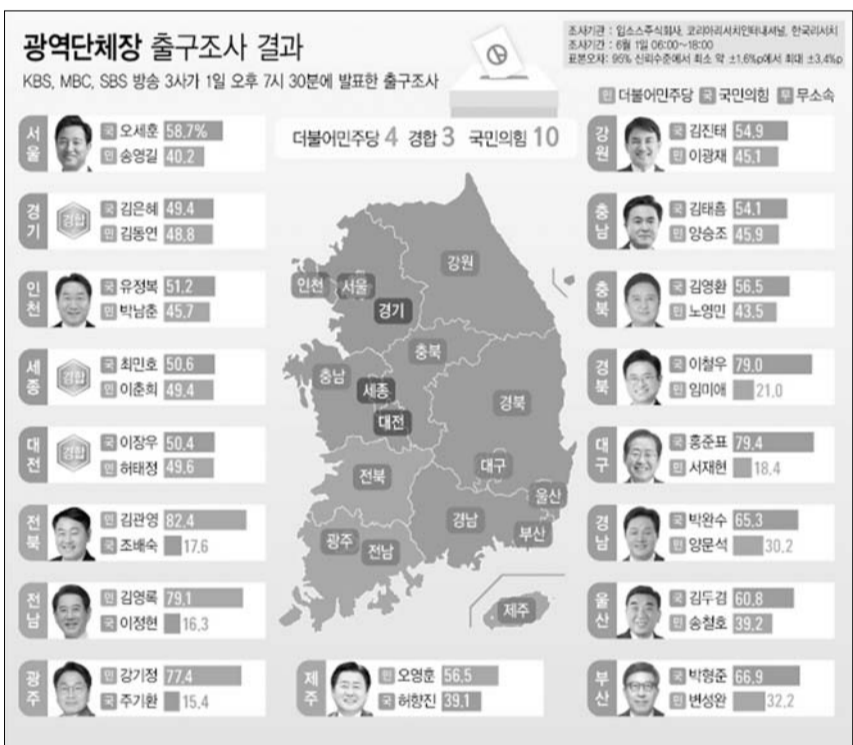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지도부의 변변한 지원 없이 ‘나홀로 지원 유세단’을 꾸려 사실상 전남지역 선거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파동, 고소·고발 등 후유증과 대선 패배에 대한 민심 이반 속에서 김 당선인은 “회초리는 때리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해 왔다.

/박종배 기자

민주 ‘침통·침묵’ 속 탄식...이재명 ‘묵묵부답’ 캠프행

출구조사 발표하자 침울...접전지역 국힘 우세하자 탄식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침울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압

승’ 결과를 받아든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17곳 광역단체장 민주 4석·국민의힘 10석·접전은 대전·경기·세종 3곳”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자,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텃밭인 전남·북지사와 제주지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강세 또는 접전 속 우세였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박홍근 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20분경부터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초조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상황실은,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오자 침묵을 이어가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다.

방송 3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는 20여분간 정적만이 흘렀으며,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경기지사 등 접전지역 쏠리던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우세가 전망되자, 일부 의원들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상임선대위원장도 간간이 머리를 뒤로 젖히며 탄식을 뱉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우세하다는 발표에도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웃음무새를 정돈거나, 자세를 고쳐 앉은 뿐 무거운 표정을 이어갔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와 끝난 뒤 ‘예상했던 결과인가’, ‘어떻게 보나’, ‘한마디만 해달라’는 기자들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캠프로 이동했다.

윤 상임선대위원장도 “투표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보겠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박홍근 선대위원장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당 차원에서 지도부와 상의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며 “좀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민주 14·한국 2·무소속 1’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당시 추미애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당시와 상반된다.

광역단체장 개표 초반...與 8곳·민주 4곳

TK·PK·충남북·강원 ‘국힘’...호남·제주 ‘민주당’

6·1 지방선거 개표에 들어간 가운데 광역단체장 17곳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인천 등 8곳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등 4곳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8시 40분경부터 개표에 들어가 오후 10시 40분 현재 전국 평균 개표율 12.35%이다.

이중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남북과 강원 등 8곳에서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당세가 강한 영남과 호남에서 승리한 가운데 접전지역인 ‘중원’을 국민의힘이 장악해가는 형국이다.

우선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5%, 송영길 민주당 후보 43.5%로 나타났다. 아직 개표율은 3.4%에 머무르고 있다.

대구시장은 개표율 13.6%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79.3%(9만3636표)를 얻어 2만574표(17.4%)를 얻은 이재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경북지사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81.2%(15만6178표)를 얻어 임미애 민주당 후보 18.8%(3만6164표)를 압도했다.

부산시장 역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66.9%(14만5785표), 변성완 민주당 후보 32.7%(7만2418표)보다 많았다.

울산시장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65.4%(2만2944표), 송철호 민주당 후보 34.6%(1만717표)였다.

경남지사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67.7%(13만7869표), 양문석 민주당 후보 26.8%(5만4505표)였다.

충남지사는 김태보 국민의힘 후보 57%(5만7145표), 양승조 민주당 후보 43%(4만3177표)였다.

충북지사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60.6%(8만3308표), 노영민 민주당 후보 39.4%(5만4118표)였다.

강원지사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57%(7만958표), 이광재 민주당 후보 43%(5만3629표)였다.

광주시장은 강기정 민주당 후보 76.7%(4만5497표),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14.8%(8791표)였다.

전남지사는 김영록 민주당 후보 77.3%(15만9852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17%(3만5075표)였다.

전북지사는 김관영 민주당 후보 82.3%(13만3629표),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17.7%(2만8657표)였다.

제주지사는 개표율 41.4%를 기록한 가운데 오영훈 민주당 후보 54%(6만6088표),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40.4%(4만9428표)였다.

경기·인천·대전·세종 등 4곳은 여야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1

광주 역대 최저 투표율...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린 이유는

37.7% 전국 꼴찌·역대 지방선거 중 최저치...40%↓ 처음 판세 굳은 일당 독점 패배·무투표 당선 속출·공천 잡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지역 투표율이 3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선거 중에서도 최저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독점 패배, 무투표 당선 속출, 공천 과정 잡음, 정치 무관심, 대선 패배 후유증, 결집력 부족, 정책 의제와 경쟁 실종 등의 약재가 겹쳐 유권자 대거 이탈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회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사전·우편투표 포함)은 37.7%로 전국 17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날 광주 지역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광주 지역 투표율은 64.8%를 기록했다. 이어 2회(1998년) 45.1%, 3회(2002년) 42.3%, 4회(2006년) 46.3%, 5회(2010년) 94.8%, 6회(2014년) 57.1%, 7회(2018년) 59.2%로 집계됐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판세가 굳어지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패배가 역대 최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만 당선되는 탓에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저조한 참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전략적 투표를 하며 전국의 투표 성향을 선도해 온 광주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대선처럼 굳이 투표장으로 가야할 명분을 찾지 못한 점도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20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통 표밭만 믿고 계파 정치, 편 가르기, 권리 당원 급품 제공 의혹, 여론 왜곡 등으로 공천 전후 잡음을 일으키며 정치 혐오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절박한 자세로 반성·혁신하지 않고 내실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권자가 투표 참여 동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586 옹호” 주장으로 민주당 지도

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점, 일당 독점을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마저 선거에 진출하며 파열음이 커진 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유권자 이탈이 컸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도 참여 저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5개 구청장 중 광산구청장, 광역의원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실제 광산구 투표율은 33.3%로 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오승용 김민정혁신정치 대표는 광주 투표율이 30%대로 전국 역대 최저치를 보인 것과 관련해 “시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지 않고 공천·입법 과정, 청문회 정국에서 몇몇 의원들이 헛발질했다. 이는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촛불 연합의 핵심이 해체됐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후보의 경쟁력 또한 부족했다.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분당갑 안철수 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1일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KBS·MBC·SBS 등 방송3사가 이날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갑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4.0%,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36.0%로 오차범위를 넘어 안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인천 계양을은 선거 패배 민주당 후보가 54.1%,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승리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두 곳 외에 ▲충남 보령·서천(민주당 나소열·국민의힘 장동혁) ▲강원 원주갑(민주당 원창목·국민의힘 박정하) ▲대구 수성(민주당 김용락·국민의힘 이인선) ▲경남 창원 의창(민주당 김지수·국민의힘 김영선) ▲제주 제주시(민주당 김한규·국민의힘 부상일) 등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졌다.